

친 백성(親 百姓)

이 명 직 목사님(1890.12.2 - 1973.3.30)은 한국성결 교회의 사부로 존경받으시는 분 이시다. 목사님은 성서학자로 신학자로 교육자로 설교자로 한국성결교회사에 큰 영향을 끼치셨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 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심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 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2:11 - 14).



경에 보면 참포도나무가 있는가 하면 들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 백성이 있는가 하면 친 백성이 아닌 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누구를 가리켜 친 백성이라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너희는 “나의 보배를 삼아 성민(聖民)이 되게 하리라”(신 26:18,19)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됨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어쫓으셨습니다. 즉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가리켜 ‘로암미’라 하셨습니다. ‘로암미’는

히브리어로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호세아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 할 것임이니라” 하였습니 다. 전에는 친 백성이더니 이제는 ‘로암미’(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로암미이던 이방인을 택하여 친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박해를 받아 수감되었다가 이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나올 때, 로마 관리에게 “나는 로마인인데 정죄함이 없이 구타하고 이제 가만히 나

**친 백성이러 같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곧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의
나라는 하늘에 있다'고 하였고, 예수께서는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였습니다. 천국 시민이 곧 하나님의 친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친 백성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가라함은 부당하다'고(행 16:35, 40) 한 즉 법관은 로마인이라 하므로 두려워하였습니다. 로마가 천하를 통치할 때에 두 가지 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 쓰는 법과 로마인에게 쓰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로마는 두 법을 쓰다가 망하였습니다. 성경은 두 마음과 두 행위를 미워합니다.

본문에 친 백성이러 같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곧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의 나라는 하늘에 있다'고 하였고, 예수께서는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였습니다. 천국 시민이 곧 하나님의 친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친 백성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불경건한 사람들

12절을 보면 과거에는 불경건하

게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버리셨습니다. 에서가 버림을 받은 것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망령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망령이란 말은 원어에 불경건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불경건한 생활을 하던 자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불경건한 생애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불경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라도 기도 없는 생활은 불경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라도 기도 없는 생활은 불경건한 생활입니다. 또 세상 정욕(情欲)을 따라 살았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

은 것들이라...” 하였습니다.

“음행”은 부정한 남녀 관계입니다. 소위 동성연애나 이성연애나 하는 것들입니다. 교역자나 신자나 물론하고 이와 같은 불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호색”은 실제 범행하지 않고 마음으로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가 서로 필요 이상으로 교제를 즐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을 중국어 역에는 “견색이회자 심기움야”(見色更喜者心已淫也)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호색의 생활은 ‘로암미’시대의 일입니다. 그럼으로 남녀관계를 깨끗이 해야 할 것입니다.

“술수”는 사주 팔자나 길흉을 점치는 일로, 신자의 가정에서도 피하고 가리는 것이 많이 있어, 아들을 낳으면 문 앞에 숯 조각과 고추 같은 것을 매어 달고, 여행하려면 택일하고 혼례식에는 무슨 살을 막는다고 합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떤 신자는 성경을 가지고 점치는 자가 있습니다. 성경을 어디든지 펴보고 좋은 말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그날 운수를 점치는 자가 있다하니 이 어찌 점쟁이와 다르다 하겠습

니까?

“원수를 맺는 것”, 남의 지난 허물을 용서하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기”, 남의 선행을 보고 샘하여 미워하며, 또는 남이 칭찬 받을 때 불안해 하고, 반대로 남이 실패할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당 짓는 것”은 파당을 짓는 것으로,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무슨 당, 무슨 당을 운운하는데, 당은 정가에서는 필요하지 몰라도 우리 교회 내에서는 필요없을 뿐 아니라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당이 아닙니다. 교파끼리 대항하는 당벌(黨閥)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무슨 당 무슨 당하여 교계를 소란케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단”이라 하였습니다. 천주교, 안식일교회, 만국성경연구회, 방언파 등 이단자의 진용도 삼엄하여 있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은 모두가 불경건한 생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시대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하는 것은 이 모두가 과거의 일이

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우리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심'아십

모든 불법(不法)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의 몸을 버리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얻었는가? 받았는가? 하는 애매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이미 완성된 것을 지금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따금 ‘네가 구원 얻었느냐?’ 하고 우리에게 질문해 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였으며,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먹지 말라 하더냐? 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하더냐’란 의문사(疑問詞)로써 우리에게로 다가와서 의심을 일으킵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마귀가 다

가을 때에 ‘아멘’하고 십자가를 쳐다 볼 것입니다. 구원의 징표(徵票)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심이 있는 자는 구원의 증거가 확실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구속(救贖) 하셨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전당(典當)잡힌 것을 다시 찾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가령 이 시계(時計)를 전당잡히면서 다시 찾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전당잡혔던 자인데 예수께서 자기의 보혈을 값으로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구속이란 이러한 의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마귀의 자식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겐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고민의 기도는 영혼을 구하시려는 고민이었습니다. 최후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피땀없이 난

자가 없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당하심이 없이 구원받은 자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 마귀의 독한 이빨에 걸린 인생을 능히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우리를 성결케 하심

우리를 성결케 하셨습니다. 이는 수정과 같이 맑고 깨끗함을 말합니다. 약혼한 처녀와 같이 정결(貞潔)을 보존함을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케 한 것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속죄함을 받은 후 성결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또 죄의 경향성(傾向性)에서 성결케 하신 것입니다.

어떤 형제는 은행에 가서 돈 80원(이 설교가 작성된 때의 화폐단

위를 환산하지 않은 금액-편집자 주)을 찾으러 갔는데, 행원이 돈을 주려는 것을 보니 90원인지라 기뻐서 그냥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세어 보니 90원이 아니라 8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는 자기의 마음이 불경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이러한 심리(心理)를 우리 마음 속에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 줌과 같이 우리에게 그러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을 가져다 보여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따라 다니느라고 애를 씹니다. 마치 그림자 잡으러 다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신이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 정결하여져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예수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였다는 신앙의 사실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불경건하고 세상정욕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 십자가로써 구속의 은혜를 받고 성결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결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 가야 합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 첫째로, 근신(자기를 대하여)함으로써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근신”이란 삼가서 조심함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근신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입을 근신해야 합니다. 다윗 왕은 “나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하였고, 또 “나의 입에 자갈을 먹이겠노라” (시 141:3; 39:1) 하였습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세계같이 크게 악한 것은 혀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제어(制御 = 조절함)할지라도 혀는 능히 제어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으로 선한 말이 아니거든 말하지도 말고 선한 말이 아니거든 대답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라리 다윗과 같이 ‘나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할 것입니다. 여행하는 중에 차 안에서 알지 못할 사람으로부터 반가운 인사를 받았습시다. 나는 그를 모르나 그는 나를 잘 아는 모양입니다. 만일 나의 행위의 부덕(不德)됨이 그에게 나타났다면 그에게 얼마나 실망을 주었을 것입니까? 미신자(未信者)는 믿는 우리의 행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큰 소리내지 말고 화평하게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 의롭게(사람을 대하여)살아야 한다고 믿

었습니다. 사람을 대하여는 의롭게 동정(動靜)을 취해야 합니다. 다윗이나 요셉이나 사무엘 같은 분들은 모두가 의롭게 사신 분들입니다. 오늘과 같이 의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의인이 천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승리하는 자는 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자는 끝까지 의로운 생활을 한 자입니다. 셋째, 경건(아니함을 양어)임으로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자기를 향하여는 근신해야 하고, 남을 향하여는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결의 은혜를 받은 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법입니다. 어떤 교인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아이들이 떠드니까 화를 내며 ‘야! 이 염병할 자식아’ 하였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만을 보면 경건한 신자같은데 그 언사를 보면 경건의 능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말해온 것과 같이 도덕적으로만 살아가면 됩니까? 아닙니다.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

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
야 합니다. 우리의 성결한 삶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함에 있습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깨어있어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재림의 주
님을 만나는 그 아침에 우리의 인
생의 모든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
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
여금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친 백
성을 삼으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
러므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동
시에 선을 열심으로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림만 기다리고 선을 행
함이 없다면 이는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불교도와 다를 것이 없습
니다.

그러면 선행은 무엇입니까? 곧
도(道-하나님의 말씀)를 전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의 나심
을 전하였던 것처럼(눅 2:17), 사
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선전했던
것처럼(요 4:39), 우리는 예수님
을 증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의
말씀인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
다. 형제 자매여 잠잠하지 말고 게
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
십시오. 입으로 전하든지 문서로 전

하든지 선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것
이 하나님의 친 백성된 자의 사
명입니다. (본 설교는 본지 발행인 홍순균
목사가 현대적인 어법으로 다시 정리한 것임
-편집자 주) **선**

화제 및 미담집

팔천사에서는 생생한 믿음의 사람들 이
야기와 삶의 현장 이야기를 찾고 있습니
다. 기사화하여 성결가족들에게 선한 도
전과 신앙정서에 도움이 될만한 화제가
주변에 있으면 각 지방회의 본지 직원기
자나 팔천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혹
은 직접 기사를 작성하셔서 팔천사 편집
부로 보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 **사건화제**: 알려지지 않은 신앙의 역사적 사건을 소개함.
- **인물화제**: 화제가 될만한 미담을 소개함
- **말씀화제**: 특수한 사명이 돋보이는 교회나 선교단체 소개함
- **성경화제**: 성경교인으로 사위나 교회에 크게 공헌한 인물소개

